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축사 악취 문제
해결 협업 전략 회의 개최

부안군은 최근 부서간 협업·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축사 악취 협업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지원 및 악취 등을 관리하는 전 부서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서 간 협업·지원 체계 개선,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설치 현황, 폐비 및 비료 살포 문제 해결 방안, 부속도 검사 협조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 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협업을 통한 축사 악취 저감방안을 토론했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경영
부담 달기 이자 지원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사료비 부담이 급증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배정 대상인 429농가(655억원)에 대한 이자 지원금이다. 다만, 지원 대상 중 실제 대출을 실행한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금리(1.8%) 중 0.4%~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우 50두 미만 농가는 1.8%, 50두 이상 100두 미만 농가는 1.3%, 한우 100두 이상 농가와 그 외 축종 농가는 0.4%의 이자 지원을 받는다. 사육두수 기준은 정책자금 신청 당시의 자료를 따른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해안철도 국가계획반영 등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 중앙부처 방문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위한 총력 대응

심덕섭 고창군수가 12일 중앙부처를 찾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심 군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김영찬 원장을 면담하고 '서해안 고속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이어 국토교통부 우정훈 철도정책과장을 만나 고창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서해안권 산업 물류비용 대폭 절감, 국토균형발전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고창군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5개 시·군과 힘을 모아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며 서해안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12일 국토부 우정훈 철도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하종목 지방재정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방산선 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고 방산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지역 방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권 자연재산실장을 만나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주택 및 농경지 상습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고수면 외촌지구 풍수에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371억원)과 아산면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원)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출생아 수 증가 '전년 대비 23명 늘었다'

다양한 인구정책 출생아 수 증가 유의미한 성과 거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4년 출생아 수가 153명으로 전년 대비 2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소세를 이어오던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군의 다양한 인구정책 및 지역사회 각계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군 출생아 수는 2023년 130명에서 2024년 153명으로 2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69%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이다.

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 가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출생 축하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셋째까지 낳으면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금 최대 70만원 등 임신·출산 지원 모자 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다문화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안군 근농업재육성재단을 운영해 반값등록금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해 부안형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도 매우 높다.

상서면 거석마을 출신 이정권(주)더글로벌은 올해 첫 출생아 가정에 축하 기념품으로 세탁기를 전달하며 아기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2020년부터 매년 부안 첫 출생아 가정에 축하 기념품으로 가전제품을 선물해 오고 있다.

이어 2016년부터 부안군 근농업재육성재단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2023년부터 고창사랑가꾸기부채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관광, 관광두레사업 본격 시동

정읍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광두레사업'이 본격화된다.

12일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관광두레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화수 시장과 오홍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은 정읍시청에서 만나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관광두레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광두레 PD 활동 지원을 비롯해 관광두레사업 관련 행



정 지원과 홍보를 담당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PD의 역량 강화, 주민사업체 발굴과 창업 지원, 관광컨텐츠 홍보 마케팅 등을 맡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풍어제가 열리고 있다.

'주민의 안녕 · 풍년농사 기원'

정월대보름 전야 읍 중앙당산서 '고창오거리당산제'

올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고창군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당산제와 풍어제가 열리고 있다.

고창군 오거리당산제보존회(회장 고복환)는 정월대보름 전야인 지난 11일 저녁 읍내 중앙당산 일대에서 마을 조상신과 수호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무병,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44회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열었다.

고창오거리당산제는 민족 명절인 설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고창읍 동서남북 네거리를 수호하는 당산의 당제를 정월초사흘(1월31일)과 초파일(2월5일)에 지냈다.

당산제는 정월대보름 전야 고창읍 중앙에 위치한 중앙당산에 300여명의 군민이 모여 고을의 연운을 기원하며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과정을 통해 고창사람의 정체성을 전승해가는 지역 전통문화축제다.

고복환 회장은 "이번 고창오거리당산제는 고창군과 고창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큰 정성과 소망을 담았다"라며 "군민의 화합 단결을 위한 대동놀이와 새해 소원지 달기, 제기차기, 무료 떡 나눔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관광객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창오거리당산은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오거리당산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고창오거리당산 보존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거리당산제보존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동육아 '품앗이' 본격 운영

정읍시 공동육아 품앗이가 본격 시작된다.

시 가족센터는 지난 11일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품앗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 내 자발적인 육아 공동체를 지원하고, 부모들이 함께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품앗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33가정이 참여해 돌봄 품앗이 활동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품앗이' 사업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구성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와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시 가족센터는 품앗이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육아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들이 서로 돕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놀이 경험과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가족센터는 품앗이 활동 외에도 부모 교육, 가족 체험 프로그램, 육아 상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